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6호 [부제 제25459호] 주제 105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  
방어대를 사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류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  
장인 유헌상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유헌  
소장 박정천동지, 조선인민  
군 제4군단장인 유헌중장  
리성국동지, 군단정치위원장  
유헌소장 리영철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마합도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군무생활의 하루를 레사  
로 시작하며 전투준비에  
여념이 없던 군인들은 너무  
도 뜻밖에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뵈우게  
된 놀라움과 기쁨, 크나큰 영광과 행복  
에 겨워 최고사령관동지를 성벽마냥  
에워싸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흰한  
미소를 지으시고 솟구치는 눈眸로 두眸  
을 적시는 군인들을 사랑의 힘에 안아  
주시며 그들의 등을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맞이한 마합도  
방어대에서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제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어대  
지휘부와 여러 중대들의 병실, 교양실,  
식당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과 따뜻한

담회도 나누시면서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실의 난  
방보장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시고 난  
방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뜨뜻하게 생활하며 건강한 몸으  
로 전투정치훈련에서 성과를 이루할 수 있  
다고 하시었으며 세목장을 돌아보시면서  
는 태양열풀가열기를 이용하여 군인들이  
더운 물을 마음껏 쓰게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양실에  
서 정치사상교양사업실태에 대하여 료해  
하시면서 마합도방어대 군인들이 컴퓨터  
자료전송체계를 이용하여 매일 당보와  
군보를 정상적으로 보며 당의 목소리를

듣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방어  
대와 같이 직들과 직접 대처하고 있는 최  
전방의 군인들은 그 누구보다 혁명적신념  
이 투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사상교  
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방어대군인  
들을 견결한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지  
닌 불굴의 투사를 더욱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화생활  
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는 것과 함께 독  
서기풍, 학습열풍을 일으키며 중대에 술  
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섬방어대 군인  
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언제나 빛만과 희열에 넘쳐 보  
람한 군무생활의 나날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와 군인가족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청초소  
군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풍농사, 온실농사, 축산과 함께 수  
산부업에도 힘을 넣어 섬초소군인들이 특  
지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합도방  
어대를 중심으로 다심한 아버지와 어머  
니, 딸형, 딸누이와 같은 지휘관들과 서  
로 돋고 이끄는 정다운 동지들이 있고 따  
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이 있는 병사  
들의 보금자리, 사랑과 정이 뜨겁게 흐르  
고 정으로 굳게 뭉친 군인들의 정든

차지한 진지에서 기동시켜 정해준 목표  
를 다각화해 대한 명령을 주시고 포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  
국을 강히 암살해보려고 어리석게 날  
뛰는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을  
안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온 일당백포병들은 신속히 사격준비를  
풀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자 전선수역을 통제로 들었다놓는  
요란한 포성이 울려퍼지고 멀찍의 포탄들  
이 대기를 가르며 날아가 정해진 해상목  
표를 정확히 명중하였다.

2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지난 7월에 진행된 섬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경기에서 명포수상을 쟁취한 이곳 방어대 포병들이 역시 다르다고, 마할도방어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면서 사격결과를 높이

정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에  
게 있어서 조국수호를 위한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하는것이 곧 최대의 애국  
이라고 하시면서 마할도방어대를 둘아  
보고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것은 훈련을  
드세계 강도높이 진행하여 포병들을  
배발백중의 명포수들로 준비시킨것이라

고, 단방에 목표를 명중한 군인들을 모두 엎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정을 담아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의 전체

부르고 또 불렀다

마할도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머나먼 천선수역의 섬초소를 찾아오시여  
크나큰 영광과 꿈만 같은 사랑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파업  
을 결사판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 당창건 71돐,  
《근, 퇴》결성 9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  
를 보내여 왔다.

장, 쇄스고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전한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폴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자,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연구소 리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 통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교 전략국제학회 국제평화 후서기장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체스포슬로벤스포공산당 중앙위원회, 칠레맑스-페닌주의혁명당, 베팔공산당(현 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베팔공산당(통일 링스-페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군로자령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전국당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만마현령현대성발전당 총비서,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풍풀인민당 총비서대리,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페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자리아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통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통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라니당 총비서, 카보자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루蠹전선 총비서, 끼르기즈스딴아일란당 지도자, 《끼르기즈 엘레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풍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무정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우주의 전국지도리사회, 경북증진당(화드-제인우드)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이탈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탈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대리,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회, 말리를 위한련합 위원장, 모리타니공화국을 위한련합 위원장, 통고로통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민주통고로통당 총비서, 민주통고루룸바주의통일당 총비서, 민주통고 채권 및 민주주의를 위한인민당 총비서, 민주통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짚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도미니카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베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위원장,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관계비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면방비서국 총조정자, 베네수엘라 푸빠마로 혁명운동 전국지도부 총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페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빠루로통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자유루로동맹을 위한 빠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오스트랄리아공산당 총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정시언어집과 세계 언어 종서기를 비롯하여 그  
씨아, 중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만마, 몽  
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캄보쟈, 타이, 파키스  
탄, 끼르기즈스탄, 이란, 인디아, 일본, 노르웨  
이, 덴마크, 도이췰란드, 몰도바, 벨가리아, 바  
라투씨, 스위스, 스웨덴에, 유클레니아, 유클레  
스포, 체스포, 프랑스, 펜란드, 폴스까, 영국, 오  
슬란드, 이탈리아, 에스파냐, 기네, 나이제리아,  
베닌, 세네갈, 민주콩고, 앙골라, 우간다, 에볼  
트, 에티오피아, 베히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  
롬비아, 베루, 에콰도르,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  
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를과 국제기구, 주  
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  
표들이 축전과 축하연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또한 아랍사회부총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술로  
벤스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이탈리아의 공  
산당 국제부장, 달파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파냐민인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가  
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짐바브웨아프리카민  
족동맹-애국전선당 행정비서, 에짚트자유사회  
주의자당 부위원장,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 및 국제비서, 민주통고루물바전국운동 제  
1부위원장,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  
장, 전 쏘련 국방상, 로씨야 21세기원천학단 단  
장,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주체사상국제  
연구소 회사장, 부회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각하께

각하  
코나크리에서 진행된 《기네공화국복립 58돐에 즈음한  
자주적인 아프리카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주체사상전 국토론회에 참가한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성원들이며 주체사상선봉자들인 저희  
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실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사상의 뛰황한  
빛발따라 영웅적 조선인민이 선군의 기치밑에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들에서  
격려해 경的危害을 얻게 되었습니다.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프리카의 단결과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최고령도자각하  
저희들은 선군의 기치밑에 이룩된 주체혁명의 전위들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풍현을 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살가 축원하며  
각하의 현명한 행도밑에 조선인민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  
하기를 축신으로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아프리카인민들로 하여금 『세계화』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주와 평화를 공고히 하여 주는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희들은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되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더욱 뛰어난 혁명성과 혁신성이 있는 혁신적인 혁명을 이끌어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꼬나크리

# 주체사상전국토론회

## 기네에서 진행

주체사상전국토론회

## 기 네 에 서 진 행

《기네스공화국록립 58돐에 즈음한 자주적인 아프리카전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주제사상전국토론회가 4일 기네의 꼬나크리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우리 나라 기발파 기네기발이 계양되어 있었다.

《기네공화국록립 58돐에 즈음한 자주적인 아프리카전설에서 청년들의 역할 2016년 11월 4일 꼬나크리》라는 글밭과 《영생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등의 구호들이 토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토론회에는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기네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주체사상연구 조직 인사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하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의 축하발언에 이어 보고와 토론회가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同志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고 그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평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들은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우리 공화국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 자주적이며 면역하는 아프리카전설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기네-조선친선단결 만세!》 등의 구호들을 호창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제작되었다.



#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 기념 사진전람회 개막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 기념 사진전람회『태양과 조선 내성운동』이 개막되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서 어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확신하시며 밤낮에 활동한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 기념 사진전람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함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고 혁명하게 빙도하여 오신 내성운동』이 개막되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서 어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확신하시며 밤낮에 활동한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 기념 사진전람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함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고 혁명하게 빙도하여 오신 내성운동』이 개막되었다.

전람회장은 항일혁명투쟁과 불길속에서 주체조선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혁명발달의 때 시기, 때 단계마다 조선내성운동이 나아

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역사에 기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조선민주성동맹 제3차 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 『조선민주성동맹 제5차 대회 대표들의 탐험을 헤쳐온 인사를 맡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을 비롯한 사진분야에는 조선민주성동맹 제3차 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함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고 혁명하게 빙도하는 혁명가의 기상으로 활기찬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전국여러나라의 참가자들을 축하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同志, 『경기녀성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 『미련한 사진들이 전람회장에 도서져 있다.

그는 모든 너명일군들과 너명원들이 배두산체육인들의 주체적 너성운동 동사상과 업적을 응호하고자 헌법과 일정을 함께 기록해 전하는 『너명일군들과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를 기록하는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를 맞으며 사전전람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너명일군들과 너명원들이 배두산체육인들의 주체적 너성운동 동사상과 업적을 응호하고자 헌법과 일정을 함께 기록해 전하는 『너명일군들과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를 맞으며 사전전람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너명일군들과 너명원들이 배두산체육인들의 주체적 너성운동 동사상과 업적을 응호하고자 헌법과 일정을 함께 기록해 전하는 『너명일군들과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를 맞으며 사전전람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너명일군들과 너명원들이 배두산체육인들의 주체적 너성운동 동사상과 업적을 응호하고자 헌법과 일정을 함께 기록해 전하는 『너명일군들과 조선민주성동맹 제6차 대회를 맞으며 사전전람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 총서 『불멸의 향도』 중에서 장편소설 『야전렬자』가 나왔다

최근 4.15문화상작단에서 출서『불멸의 향도』에서 장편소설 『야전렬자』(태남봉 작)를 창작하여 내용이다.

주제 100(2011년) 정초부터 12월 말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소설은 사회주의조선의 무강 가정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네 민영을 위해 헌생한 인민행렬자 를 다시 고백명의 쇠선방을 초강도 강행 군으로 달려오신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同志의 블집의 혁명생애의 미지막시기에서 있었다.

리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너명일군들, 너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정은同志의 행도적 풍랑을 살피며 헌생의 선수로 력사가 영원토록 흐르게 하신 경애하는

개막식이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리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너명일군들, 너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정일同志의 행도적 풍랑을 살피며 헌생의 선수로 력사가 영원토록 흐르게 하신 경애하는

개막식이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